

구 기타하마 지구 창고군

오타루는 19 세기 중엽에 이미 해운업과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지만, 1882 년에 내륙의 광산에서 항구로 석탄을 운반하는 홋카이도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증가하는 항구 이용 수요에 맞춰 해안 매립이 이루어져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1889 년에 매립지에 만들어진 기타하마 지구는 항구와 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창고가 지어졌습니다. 이 창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것은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등의 혼슈 호쿠리쿠 지방에 기반을 둔 해운 회사였습니다.

오타루 운하의 북쪽 끝에 가까운 기타하마 지구에는 현재 이 해운 회사가 지은 창고 중 6 채가 남아 있습니다. 오타루와 삿포로에서 채석한 응회석을 목재 뼈대에 고정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응회석은 화재 방지도 도움이 되었으며, 목재 뼈대는 빠르고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1. 구 우콘 창고

우콘 창고는 1894 년에 후쿠이현의 해운 회사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맞배지붕을 가진 대형 창고로 정면에는 우콘의 가게 로고인 2 개의 젓가락을 본뜬 평행한 검은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는 매장 앞과 직원의 유니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창고는 원래 솟을지붕이었습니다. 그러나 1924 년에 데미야역에서 화물로 운반되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우콘 창고 등 인근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붕은 재건되었지만, 도려내진 형상이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2. 구 히로우미 창고

히로우미 창고는 1889 년에 지어진 큰 목골석조 창고입니다. 히로우미 가문은 이시카와현 가가의 해운 회사를 운영했으며, 1889 년에 오타루에서 창고업을 시작했습니다. 히로우미 가문은 해산물도 거래했고 19 세기 말에는 우콘 가문과 함께 해상 보험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이 창고는 화물을 싣기 위한 대형 출입구에 설치된 아치형 석재 장식이 특징입니다.

3. 구 마스다 창고

마스다 창고는 1903 년에 지어졌습니다. 마스다 가문은 히로우미 가문과 마찬가지로 가가의 해운 회사를 운영했으며, 1880 년대에는 목조 기타마에부네(北前船, 상품을 매매하면서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던 상선) 8 척과 유럽식 범선 3 척을 운항했습니다. 창고는 목골석조 2 층 건물로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콘 창고, 히로우미 창고, 마스다 창고는 사카이마치 거리의 기무라 창고 내에서 상점 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기타이치 유리(오타루시에 있는 유리 제조 판매 회사)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구 오이에 창고

오이에 창고는 1891 년에 이시카와현 가가에서 해운 회사를 운영한 오이에 가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넓은 정면 벽에는 2 개의 문이 있으며, 그 위에는 석조 이중 아치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솟을지붕에는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5. 구 시부사와 창고

시부사와 창고는 1895년에 지어진 3채가 연결된 석조 건축물입니다. 맞배지붕이 있는 큰 석조 건물에 2개의 작은 건물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창고는 엔도 가문에 의해 지어졌지만, 1915년에 사업가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가 매입했습니다. 시부사와는 일본 근대 경제를 발전시킨 공로로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에 발행된 1만 엔 신권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창고는 현재 카페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6. 구 오타루 창고

오타루 창고는 1890년에 가가에서 해운 회사를 운영한 니시타니 쇼하치와 니시데 마고자에몬에 의해 매립 직후의 땅에 세워졌습니다. 화물을 하역하고 처리하던 안뜰을 에워싸듯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 창고 중 일부는 오타루시 종합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